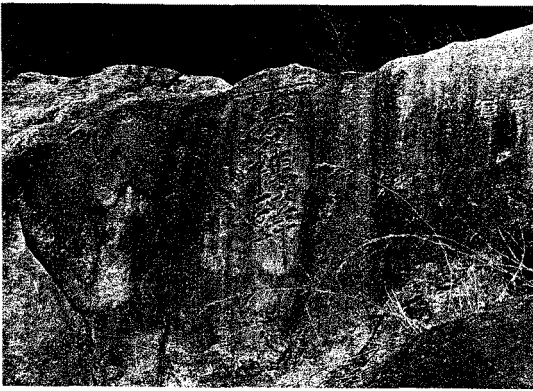


팔괘정(八卦亭)

- 소재지 :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86-1번지
- 건립시기 : 1663년(현종 4)
- 건립주체 : 송시열(宋時烈, 1607~1689)
- 지정사항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1978년 03월 31일 지정)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이황(李滉, 1501 1570), 이이(李珥, 1536 1584)와 스승인 김장생(金長生, 1548 1631)을 추모하며, 학자들과 강학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1662년(현종 3) 송시열이 황산으로 이사를 와 정자를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663년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1695년(숙종 21)에 송시열이 죽림서원(竹林書院)에 배향(配享)된 후 팔괘정은 죽림서원의 부속건물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광복 후 1948년 죽림서원 유림들의 노력으로 되돌려 받았고, 1949년 송시열의 본손(本孫)인 송재성(宋在晟)이 유림의 협조로 중수하였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건물로 방바닥은 누마루형을 취하고 있는데 정면에서 볼 때 왼쪽의 2칸은 통간으로 대청마루를 만들었고, 오른쪽의 1칸은 온돌방으로 꾸며져 있다. 처마는 겹치마이며 부연의 처리가 수려한 팔각지붕의 한식 기와집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팔괘정은 주역의 팔괘에 맞추어 지었다고 전하는데 조선시대 정자건축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한식 카옥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자 내부에는 시액 현판이 걸려있다.

팔괘정 주변에는 건물의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 수키가 흩어져 있고, 건물 뒤편의 바위에는 송시열이 각자(刻字)했다고 전하는 '정추연(淸亭淵)'·'몽래덕(夢來德)' 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또한 이종환이 『백리지(百理志)』의 말문을 쓴 곳이기도 하다.



〈제공 : 충남역사문화원〉